

대기업 순이익 1년새 2배 꺾춤... 쓸림 현상은 심화

60대 기업 매출 5년만에 흑자 상위 5개 기업 경제력 집중 삼성·SK·LG가 74% 달해 한국GM 판매감소 13계단 뚝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소 위원장이 2018년도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대기업집단의 매출이 지난 해말 기준으로 5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반도체 호조 등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의 당기 순이익은 1년 만에 2배 늘어났다.

하지만 상위 5개 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지속됐다. 삼성과 LG, SK가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의 규모는 60개 대기업이 기록한 당기순이익의 74.1%에 달했다. 같은 대기업집단이라도 상·하위 그룹의 차이가 벌어지는 등 대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는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경기 악화, 자동차 판매 부진 등 여파로 일부 대기업의 자산·매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 5조 원 이상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으로 지정하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지난해 12월말 기준)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임금·물가·규제 대상이 되며 비상장사 중요 사항·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 중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은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 간 상호출자·신규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자산 늘고 부채 비율은 하락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1966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9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57개 기업보다 124조6000

억 원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자산 총액은 32조3000억 원에서 32조8000억 원으로 5000억 원 늘었다.

카카오는 보유한 상장사의 주식 가치가 오르면서 자산 순위가 50위에서 39위로 상승했고 셀트리온도 49위에서 38위로 꺾춤 뛰었다. 반면 한국GM은 국내외 경기악화에 따른 판매 감소 여파로 41위에서 54위로 13계단이나 떨어졌다.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지난해 30개 지정집단(1653조 원)보다 104조4000억 원 늘어난 1757조4000억 원이었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지정집단(76.0%)보다 4.8%포인트(p) 하락한 71.2%였다. 유상증자로 자본금이 늘어난 대우조선해양(-2,492.4%p)과 대한항공 부채가 줄어든 한진(-207.0%p) 등이 많이 감소했다.

◆반도체 호조로 대기업 순이익 100조원 돌파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매출액은 135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지정집단

(1233조4000억 원)보다 126조1000억 원 증가했다. 평균 매출액은 1조 원 늘어난 22조7000억 원이었다.

삼성과 SK가 반도체 판매 호조에 힘입어 매출이 각각 34조6000억 원, 32조2000억 원이나 늘었다. LG도 가전 등 주력산업 판매가 늘면서 12조8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롯데는 롯데쇼핑 회계기준 변경으로 매출이 2조2000억 원 줄었고 대우조선해양·금호아시아나 등도 매출이 감소했다.

삼성·SK·LG 등은 반도체 호조세로 매출이 늘면서 당기순이익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원화 강세와 해외법인 실적 악화로 순이익이 3조8000억 원 줄었다. 한국GM도 순이익이 5000억 원 줄었고 부영도 분양주택 수익이 감소하면서 6000억 원 줄었다.

◆대기업도 '부익부 빈익빈'

대기업 간 자산·매출의 쓸림 현상도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전체 자산에서 상위 5개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이 차지하는 비중은 53.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53.0%보다 0.4%p 상승한 것이다. 상위 5개 집단의 매출액 비중도 지난해 56.2%에서 올해 56.7%로 0.5%p 높아져 격차가 더 커졌다.

반면 상위 5개 집단의 당기순이익 비중은 70.5%에서 67.2%로 줄어 들었다. 자산 대비 매출·순이익 성과 지표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위 28개 집단의 자산 대비 평균 매출액은 0.626이었지만 상위 5개 집단은 0.73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자산 대비 평균 당기순이익도 하위 28개 집단은 0.042였지만 상위 5개 집단은 0.064에 달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20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상위 20개사)

(2018. 5. 1. 기준, 단위: 조 원, 개)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소속회사수		자산총액(공정자산)		
			2018	2017	2018	2017	
1	1	삼성	이재용	62	62	399.5	363.2
2	2	현대자동차	정몽구	56	53	222.7	218.6
3	3	에스케이	최태원	101	96	189.5	170.7
4	4	엘지	구본우	70	68	123.1	112.3
5	5	롯데	신동빈	107	90	116.2	110.8
6	6	포스코	(주)포스코	40	38	79.7	78.2
7	7	지에스	허창수	71	69	65.0	62.0
8	8	한화	김승연	76	61	61.3	58.5
9	10	농협	농협협동조합중앙회	49	81	58.1	50.8
10	9	현대중공업	정몽준	28	29	56.1	54.3
11	11	신세계	이명희	39	37	34.1	32.3
12	12	케이티	(주)케이티	36	38	30.7	32.1
13	13	두산	박용곤	26	26	30.5	30.4
14	14	한진	조양호	28	34	30.3	29.1
15	15	씨제이	이재현	80	70	28.3	27.8
16	16	부영	이종근	24	22	22.4	21.7
17	17	엘에스	구태희	48	45	21.0	20.7
18	18	대림	이준용	27	26	18.7	18.4
19	22	에스-오일	에스-오일(주)	3	2	15.2	14.0
20	21	미래에셋	박현주	38	41	15.0	15.2

이재용 총수 지정... 삼성 “달라지는 것 없다”

이건희 물러난지 4년 만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을 이견희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2014년 5월 이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지 4년 만이다.

삼성도 동일인이 변경됐지만 그룹 경영이나 이 부회장의 역할에는 실질적으로 달라질 것 없다는 입장이다.

1일 공정위는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대기업집단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기 위해 삼성의 동일인을 이재용 부회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상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인 또는 법인을 일컫는 말이다. 대기업 총수와 사실상 같은 의미다.

중전 동일인(이건희)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집단내 임원변동 및 조직변경 등 지배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가 삼성 동일인을 변경한 것도 “이 회장의 와병으로 일체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삼성은 공정위에 이 회장 건강상태와 관련된 별도의 자료도 제출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에서 계열회사 임원 변동, 주요 인수합병(M&A) 등 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도 이 부회장의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도 동일인 변경에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동일인 변경에 따른 계열사 변화가 거의 없고, 이 부회장의 그룹 내 역할도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롯데총수 인정’ 신동빈, 원톱체제 굳혔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 유리할 듯 신동주, 회사 계열사 편입 우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총수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신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롯데의 동일인을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 회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롯데는 신동빈 ‘원톱’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됐다.

롯데그룹은 이날 공정위 발표 관련해 “공정위가 롯데의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법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서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 지정한 만큼, 신동빈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동안 신 회장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롯데 비상경영위원회는 이러한 롯데의 개혁작업이 지지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롯데는 공정위가 동일인을 신 회장으로 변경하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할 것과 신 회장 및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안을 제출하는 등 경영권 탈환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110조8000억 원에서 올해 116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소속회사도 90곳에서 107곳으로 늘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 블랙스톤에 듀팜리조트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총 14개사가 모두 계열사로 편입됐다.

/박인용 기자

3일만 기다려주세요

더 나은 전산시스템 교체를 위한 우리은행 금융거래 일시중단

5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어민이날
6 7 8 어민이날
9 10 11 12

2018년 5월 5일(토) 00시~
2018년 5월 7일(월) 24시

← 우리은행
금융거래 일시중단 →

체크카드를 포함한 자동화기기(ATM),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우리은행의 모든 거래가 일시 중단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필요한 현금 미리 준비

체크카드 사용 불가 (단, 신용카드 사용은 가능)

중요한 자금이체 사전 송금 완료

금융거래중단 관련 전용 상담센터 : 1811-5000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참고해주세요.

우리은행 WOORI BANK